

■ 1977年 圖書館界의 回顧

特殊圖書館界

丁 海 辰
韓國標準研究所

1. 머리말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이 땅에 현대적인 의미의 도서관이 정착하기 시작한지 어언 20년이 지난 지금 매년 12월이 되던 한해동안 각급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회고해 보는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의 숙원인 도서관법의 개정이 타든지 장기개발계획의 실천이라든지 무엇하나 만족할 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 도약 준비를 하던 한해로 1977년을 넘겨보내고마는 감이 든다.

그러나 의적으로 볼 때는 커다란 변화를 찾아 볼 수 없겠으나 각급 도서관들이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대처한 봉사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내면적인 충실을 기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현대 사회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구조가 복잡 다양화하며, 변화 속도는 급변하고 유통화됨에 따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직관적인 판단이나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정보의 평가, 축적 이용등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모든 분야에 파급시켜 공존하여야 할 필요성을 낳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이들의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합리적이며 총체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 강구되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도서관은 이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시급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고도로 변화 발전되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과학기술정보를 취급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인 특수도서관계의 금년은 새로운 연구소의 설립에 따른 기술정보를 취급할 도서관들이 여러 곳에 생겼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료를 Computer에 입력시켜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ON·LINE System의 개발 등, 발전적인 면을 보였으나 일부 도서관을 제외한 대개의 도서관들이 Computer의 도입이라든가 모든 System의 자동화 또는 기계화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

과 노력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한 1년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 고에서는 필자가 과학기술분야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관제로 한국의 전체 특수 도서관계를 회고해보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2. 숫적으로 팽창하는 특수도서관

금년의 특수도서관계는 숫적으로 많이 증가한 해였다.

우리 나라의 각급 도서관들은 아직도 도서관을 설치하고 보급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1976년에 108개관이던 것이 금년에 106개관으로 줄어 든 현상은 아직도 정부의 강력한 도서관정책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겠다. 한나라의 도서관문화를 이끌어 갈 공공도서관의 발전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체 도서관의 발전이 더디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러나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특수도서관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팽창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특수 도서관의 수가 94개관이던 것이 금년에는 14%가 증가되어 107개관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 107개관은 도협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숫자로 이 외에도 산업이 발전하고 외국과의 무역이 날로 고조됨에 따라 국내의 6,000여개 기업체에서는 자체내에 도서관 혹은 정보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선 선진 도서관학의 이론 및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운영되는 도서관이 특수도서관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3,000여개의 학교도서관은 대외적인 봉사보다 학습의 연장이므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아마도 앞으로의 한국도서관계를 이끌고 나갈 도서관은 특수도서관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3. 연구기관 설립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도서관의 태동

정부는 1976년까지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금년부터 81년도까지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번 4차계획의 목표는 국가의 항구적 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양적 질적향상에 목적을 두고 성장·형평·능률의 이념아래 자력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을 주축으로한 고도산업사회가 전개될 80년대에는 기술혁신의 본격적인 전개로 선진 공업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도약하여 갈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기술 및 숙련 노동집약적인 기계, 전자, 조선공업등의 집중 육성 필요하고 또한 품질향상,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 개발 체제의 정비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소들이 대덕전문연구단지 등을 비롯하여, 창원과 구미공업단지에 설치되게 되었고, 이들 연구소들의 중추기능인 정보관리 및 정보 Service업무를 담당할 도서관(기술정보실, 자료관리실, 자료정보실들이 금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거나 준비작업을 하여 내년도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특수도서관이 새로 활동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들 연구소의 설립계획에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들 연구소 중에서 특기할 것은 「대덕전문연구단지」로 이 연구단지는 KIST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연구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관리에 이어 건설되는 연구단지로 산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 서울에 산재한 국·공립연구기관들을 전국의 산업기지에 퍼져있는 산업체에 지역적으로 지원이 용이한 대덕 일원의 동일지역에 집결시킴으로써 연구원의 상호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지적 교류를 증대하고 기술정보의 신속한 교환 등 연구 집산화의 일반적 장점을 갖춤으로써 기술개발과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단지내에 입주할 기관은 한국표준연구소, 한국선박해양연구소, 핵연료개발공단 등의 행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 참여형 연구소인 한국화학연구소, 각 연구소 및 대학의 공동활용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충남대학교와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 등이다. 그 중 특기할 것은 서울연구단지내에 있는 과학기술정보센터의 분소가 단지내에 설치됨으로 단지내 도서관의 중심역할 및 지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단지내 도서관들의 협의기구를 통해 공동수서, Inter-library loan 및 상호협력체제의 모범적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연구소명	주요사업	위치	건설기간
1. 선박해양연구소	1) 선박설계·생산기술개발 2) 선박기계기관 및 자재의 국산화 개발 3) 해양과학(조력·동력포함) 분야 기술개발	대덕	'74~'78 (1단계)
2. 표준연구소	1) 국가표준유지 및 표준과학기술 연구 2) 표준기술보급 및 해외정보교류	대덕	'75~'78
3. 화학연구소	1) Plant설계 및 Process개발(중앙연구소) 2) 석유화학·비료·합성고무·합성섬유·정밀화학분야의 위성연구소건설	대덕	'76~'78
4. 핵연료개발공단	1) 국내핵연료자원의 활용 2)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의 국산화	대덕	'75~'83
5. 자료개발연구소	1) 국토의 부존자원조 2) 자원기술의 개발 3) 자원정보의 집성	서울	기존
6. 기계금융시험연구소	1) 기계국산화 2) 설계 및 제작기술개발과 시험	창원	'77~'78
7. 전기기기시험연구소	1) 중전기 국산화개발 및 성능시험	창원	'77~'78
8. 전자기술연구소	1) 반도체 및 집적회로 관련 제품개발 2) Mask 및 유틸리티공장 운영	구미	'77~'78
9. 통신기술연구소	1) 선진기술도입·소화·보급속진 2) 통신시설의 국내생산을 위한 생산업체 지도 3) 체신부통신시설개발 및 운영시스템의 기술개발	대덕	'77~'81
10. 열관리시험연구소	1) 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산업열관리기술개발 3) 연료사용기기의 성능개선 4) 주택열관리기술개발	대덕	'77~'81

4. 국내 최초의 자료 ON-LINE System의 개발 활용

금년도 특수도서관계에 특기할 사항중에 ON-LINE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 활용하는 도서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겼다는 것이다.

금년 2월 19일 개원을 본 국제경제연구원 정보실은 KIST 전산개발센터와 공동으로 “국제경제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템(KIEI/KIST ON-LINE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자료검색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System은 신속·정확한 문헌 및 자료의 검색과 연구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이용율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제 1 단계로 시스템을 개발

하고 제 2 단계로 Data Bank의 설치 운용과 자료실 및 원내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시도된 시스템인 것이다.

금년에 입력된 자료는 현재 동연구원 정보실에 소장 중인 도서, 정기간행물, 보고서류중 영어, 독어, 불어, 서반어 자료들로 CODE는

B	100	0023	-02
①	②	③	④

- ① 자료의 형태
- ② 자료의 주제분류
- ③ 자료의 고유번호(일련번호)
- ④ 자료내에서의 세분된 번호

로 나타나며 Key Word는 아래의 요령에 의해 주어졌다.

1) 색인어는 해당자료 기본분류와 관련된 단어와 그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단어를 색인어로 검출

2) 한 자료당 색인어를 준수 : 평균 10~20개

3) 색인어 표기·언어 : 영어

4) 색인어 형태 : 명사형, 단수형의 단어(복수로서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복수형을 채용)

5) 색인어는 한 단어를 독립적으로 채용(복합어는 단어사이에 “-”으로 연결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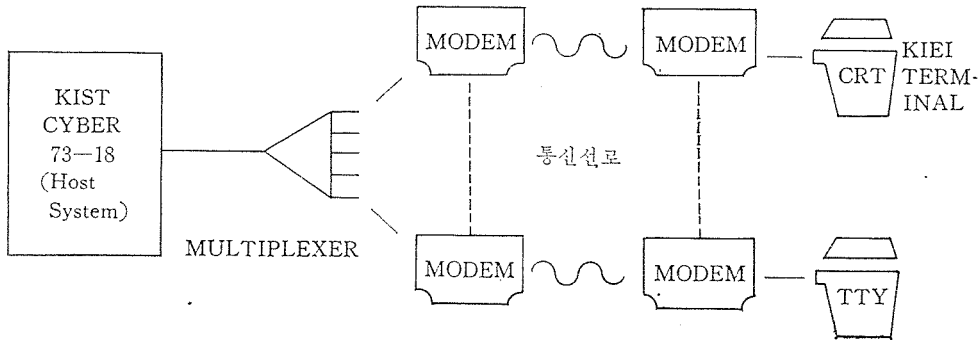
6) 부적합한 색인어의 종류

전치사(in, on, before, of 등), 관사(a, an, the) 접속사(and, that 등), 대명사(I, You, They 등)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가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introduction, large, highly 등), 내용을 대표하지 않는 동사 및 동사의 변화형(are, being, considered 등)

7) 각 나라의 명칭은 색인어로 채용할 때 통일을 기함

한편이 정보검색 시스템의 개요를 보면 <도-1>과 같고 정보검색 과정은 <도-2>와 같다.

<圖 -1> 시스템 개요



5. 외국문화원 도서관 개관

금년에는 외국대사관의 문화원 도서관이 이전 및 새로 개관을 보았다.

주한미국공보원(USIS)의 도서관이 을지로 1가에 있는 옛 미국대사관 자리로 이전·개관을 본 것이 그 하나고 주한 영국문화원이 정동에 있는 영국대사관안에 개관을 본 것이 그 하나이다.

미국공보원 도서관은 지난 해 9월부터 휴관하여 금년 3월 6개월만에 확장하여 이전 개관을 본 것으로 자주제별 전문가를 두어 봉사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VTR을 시청할 수 있는 TV세트를 비롯하여 마이크로필름 리더도 확보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利用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문화원 도서관은 영국중앙공보부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5천여권의 장서와 많은 종류의 신문과 정기간행물 및 시청자료제를 준비하여 대학원생이상을 대상으로 영국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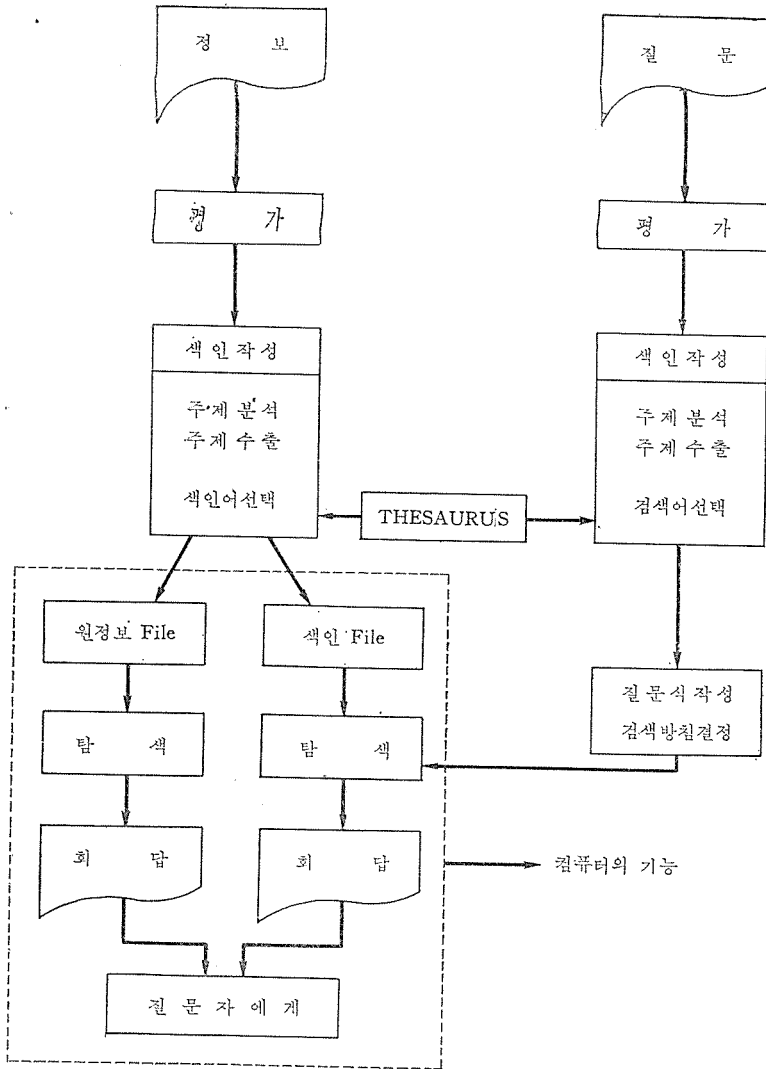
6. 협의회 활동

특수도서관계는 종합적인 협의기구는 갖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인근에 있는 도서관들이 각기·유관된 업무협의를 위해 부분적인 협의회를 결성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서울연구단지 도서관실무자협의회는 흥능기 제공업회사를 간사 도서관으로 하여 76년도 서양서 종합도서목록 발간을 비롯하여 신간도서의 목록을 교환하고 각 도서관 별로 상이한 도서관 규정을 통일한 것을 협의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한편 대덕전문연구단지내에 설립될 연구소의 도서관 실무자들도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고 자료의 성격이 유사한 관계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자료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과잉지출을 막기 위해 주제를 나누어 수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상호대차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준비를 한 일련이었다고 보겠다.

〈圖 -2〉 정보검색과정



7. 맺는 말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하였다. 숫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인 특수도서관계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 있다.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특수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 규모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날로 발전되는 산업정보, 기술정보, 과학정보 등을 수용하고 운영하고 이용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서가 있어야 하고 규모도 커져야 함을 기업들 말는 사람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바람직하게 바뀔 것이 기대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정보과학에 대한 조속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사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정보 과학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사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수도서관에서 취급되는 자료들은 도서 및 잡지의 보관에서 벗어나 모든 자료(보고서, Micro자료, Catalog 등의 특수 자료)를 취급하며 또한 정확한 주제의 분석, 신속한 추적, 자료의 재편성 등 고도의 정보처리 기술이 요청되고 있으나 아직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해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연말이 되면 항상 새해에는 보다 나은 도서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진정 1978년 새해는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숙원사업들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비는 마음 뿐이다.